

■ 2017년도 국제교류사업 3차 공모 사업별 심의 총평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사업 3차

- 사업유형/심의분과 : 2017년도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3차(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 회의일시 : 2017. 9. 19(화), 14:00 - 16: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장르순) : 이수정, 호경윤(시각예술), 송훈상, 심재민(연극), 안애순, 이지현(무용), 김용환, 이기균(음악), 김진이, 윤중강(전통예술)

2017년 국제주요플랫폼진출사업 3차 사업에는 5개 장르에 총 23건의 사업이 접수되었다. 장르별 지원건수가 많지 않아 지원심의에는 각 장르별 2인씩 총 10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장르별로 심의위원이 해당 장르에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간의 토론 등의 통합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사업은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해외 창작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예술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해외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 적격성(40%),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30%),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30%) 등 지원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다.

단순한 교류차원이 아닌, 공고한 협력관계를 통해 향후 한국 예술계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술적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이에 따라 신청된 23건의 사업 중에서 12건을 선정하고 10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시각예술 분야>

시각예술분야에는 총 4건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국제교류 성과 확산을 위해 다자간 교류가 가능한 국제교류 플랫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진행된 3차 공모의 경우 시각분야 신청이 4건으로 신청률이 비교적 저조했다. 또한 향후 국가간 그리고 기관간 문화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되는 플랫폼과의 협력을 제안한 사례도 드물었다. 구체적인 플랫폼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초청장 등 증빙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의 확산보다는 특정 작품제작비용 등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각분야는 총 2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조사연구에 대한 부분은 타 사업과 중복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포럼 참석에 필요한 직접 경비 등에 대해 지출하는 것을 지원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향후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 독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연극 분야>

연극분야에는 총 4건의 사업이 접수되었다. 사업 취지에 맞게 해당 협력기관이 주요 플랫폼으로 적합한지, 신청단체의 실적과 경력이 주요 플랫폼 진출에 적절한지 등을 주요 심의기준으로 삼았으며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은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선정된 사업들은 좋은 조건으로 초청을 받았으며 대부분 지원신청 금액 또한 적절하게 산출하여 신청하였다.

<무용 분야>

무용분야에는 총 4건이 접수가 되어 사업내용과 초대장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해외초청기관의 명망 등을 살펴봤을 때, 주요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개인 간 또는 대학간 교류의 경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예산의 경우 너무 과하게 신청한 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절하여 결정하였다. 향후 국제적인 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그에 의한 적절한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

<음악분야>

본 사업의 음악분야는 모두 6개 단체가 응모했다. 금년도의 동일 이름의 3차 심의 이다 보니까 예상보다 신청단체가 적었으며 그 중에서도 본 사업의 취지에 상응하지 않는 단체의 프로그램 구성이 많아서 아쉬움이 컸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사업인데도 공연 장소가 국내인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그 외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전통예술 분야>

전통분야는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쿠바 아바나 박람회'에 참여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총 5건이 신청되어 행사에 참여하기 적합한 단체인지를 평가하였다. 그간 국악계의 해외진출의 노력과 성과에 비해 이번에 신청한 다섯팀은 아주 우수한 단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을 고려할 때, '전통성'이 미흡하고 '대중성'에 기안한 단체들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한편, 완전한 전통공연의 경우 어떤 그들만의 공연 방식이 확실치 않는 경우 또한 해외공연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전통'에 대한 음악적 기안이 충실하면서 월드뮤직 애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